

'전북농협 상생정담' 진안서 개최 경력단절 여성 취업 돕는다

무주군, 직업훈련 과정 등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여성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들을 위해 직업훈련 과정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여성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 지역에서 필요한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해 무주 지역 여성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 요양보호사 과정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이며, ITQ(엑셀)과 한식조리사 과정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각 훈련과정을 진행 중이다.

2021년 프로그램은 4개 과정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반인 ITQ 컴퓨터(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한식조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와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해 취업 연계 서비스를 강화해 온 무주군은 미소매칭 최소화에 집중할 결

과 구직자 수 785명중 467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악화에 구인구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 53명 이수, 4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은 2015년도부터 시작해 2020년도까지 78명이 자격취득 후 46명이 취업한 상태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반은 202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무주군립요양병원이 완공되면 전문 인력 수요에 대해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전문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통한 여성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문직 여성의 인프라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에도 보다 더 나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업훈련 교육 문의는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063-320-1193)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무주군 여성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정천면에서는 17일 면사무소에서 군수와 주민들이 마주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찾아가는 열린군수실'이 열렸다.

'찾아가는 열린군수실' 진안 정천면서 열려

진안군 정천면에서는 17일 면사무소에서 군수와 주민들이 마주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찾아가는 열린군수실'이 열렸다.

이날 열린군수실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정천면민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천면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고충 및 애로사항 등 주민 건의사항을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열린군수실 운영을 통해 취합

된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군정의견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열린군수실은 평소 군수와 군민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다 활발한 소통을 위해 구상되었으며, 군청을 찾기 힘든 면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매주 수요일 읍면으로 직접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특색 5대품목 발굴 소득화사업·지역경제 활성화 선포식 가쳐

진안군(군수 전춘성), 농협진안군지부(지부장 정미경),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7일 '2021년 진안군 상생정담 진안특색 5대품목 발굴 소득화사업·지역경제 활성화 선포식'을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가졌다.

상생정담은 진안군 대표 지자체협력(특색)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추진 붐조성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한 농협 역할 제고를 위해 진행했으며 관내 농·축협조합장, 조공법인대표, 농업인대표, 농협유관단체장 등 29명이 참석하여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상생을 다짐했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손을 잡고 지역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유통시설이나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업

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전춘성 군수는 "민선7기 핵심공약의 하나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농업분야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경제국을 신설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문화하고 균형 있는 개발과 지원을 통해서 모두가 잘사는 진안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앞으로도 농협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미경 지부장은 "상생정담을 발판으로 진안군과 협력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자체와 농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비를 추가 요청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2020년도에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244건, 8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지자체협력사업 확대와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과 우수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농업·농촌의 지속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 '함께하는 100년 전북농협'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농업인대표들은 "벼 육묘·중소형 농기계·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농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진안만의 특색 있는 사업개발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산서면 행복나눔터 준공

주민활동공간·작은 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축

장수군 산서면에 편의시설을 갖춘 주민 복지서비스공간인 행복나눔터가 문을 열었다.

장수군은 17일 산서면 행복나눔터에서 장영수 군수와 김용문 군의장, 산서면장, 기관·사회 단체장과 주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서면 행복나눔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산서면 행복나눔터는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사업비 59억 6,000만원이 투입돼 산서면 행복나눔

터가 건립됐으며, 산서시장활성화 및 육영당리모델링, 시가지 간판정비, 지역역량강화 등이 추진됐다.

산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산서면 행복나눔터는 1층 주민활동공간과 2층 3층 작은 도서관 등 주민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축됐다. 또 기존 산서면

복지회관을 군 재무과와 협업을 통해 시설물 리모델링, 휴게공간 및 주차장을 정비 완료하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기반이 도심과 농촌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 테마를 살린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5곳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인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무주군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화조 청소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 6,800만원을 확보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 미처리로 인한 수생태계 오염 방지를 위해 분뇨 수거와 처리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수수료는 1톤당 1만8,000원이며, 최대 3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주민이 위생공사에 분뇨 수거를 의뢰하면 업체에서 수거 후 확인증을 주고 주민은 이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경우 각 개인의 통장에 수수료가 다음달 10일께 입금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장애인 대상 맞춤형 재활운동실 운영

무주군이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운동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재활 의지를 파악해 재활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후, 개인별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매주 월, 수, 목요일에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50분간 1:1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성질환 등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또 화, 금요일에는 보건의료원 재활운동실에서 재활 보조기구를 이용한 1:1 맞춤형 재활운동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단체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물리치료학과 교수, 작업치료학과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로 부터 재활교육을 실시하며,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 유형별 자조모임을 지원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보건행정과 한영순 건강증진팀장은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해 다각도의 재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장애인들의 건강상태 개선과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진안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9,111호의 주택가격(안)을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공식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대상 주택을 파악하고, 지난 1월 22일까지 주택특성 집중 조사를 실시해 2월 16일 관련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했으며 3월 12일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산정가격 검증을 마무리했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19일부터 4월 7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진안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진안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 후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공시하며, 이후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피부과 무료검진

장수군과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는 18일 장수군 다문화 가족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피부과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은 장수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의 MOU체결로 마련됐으며 검진은 전문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 등 4명으로 구성된 이동의료반이 관내 다문화 가족과 군민들의 피부 진료를 진행한다.

진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장수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진료비용은 전액 무료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